



권세훈 / 대림대학 인테리어디자인과 교수, 건축사
by Kwon, Se-hoon

약력

- 한양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 수료
- 건축사사무소 근무(1993~2002)
- 현 대림대학 인테리어디자인과 교수

12월... 눈오는 연구실 창가에서 건축사사무소를 회상하며...

The reminiscences of the working at architectural design firms

오늘도 2007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실감하게 하는 12월의 여느 날과 다를 게 없는 일상적인 하루이지만, 창밖에 날리는 하얀 눈송이가 나뭇의 여유를 가져다주어 지난 세월에 대한 기억들을 떠올리게 한다. 천직으로 알았던 건축사사무소를 떠나 대학의 전임으로 옮긴지 어느 덧 만 5년이 되었지만, 그 시절의 기억들은 아직도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지곤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만 10년의 건축사사무소 시절을 나름대로는 꽤 치열하게 보냈었고,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실무 경력에 대한 자긍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있기에 건축사사무소는 내게 있어 고향과도 같은 곳이다.

5년 전 이맘때가 떠오른다. 여느 해의 12월처럼 추운 날씨에 지금처럼 대통령 선거 운동이 한창이었다. 그 때 내 생애에 있어 가장 치열했던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 고민의 결과로 난 건축사사무소를 떠나 대학의 전임이 되었다. 건축설계 현업에 대한 많은 미련을 뒤로 하고서... 이 때 내가 했던 고민들을 굳이 글로 옮기지 않더라도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분들은 대다수 공감하지 않을까? 그 때의 상황들이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과연 얼마나 나아져 있을까?

1993년 대형 건축사사무소의 하나인 W건축사사무소에서 나의 설계실무 경력은 시작되었다. 입사 이틀째부터 시작된 야근, 철야는 3개월간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때까지 쉬는 날 하루 없이 계속되었고 - 하루 쉬고 다시 현상설계에 투입되었다 - 출근길 차가 폐차되는 교통사고에도 병원에서 X레이 한 장 찍고는 사무실로 달려와 철야 작업을 하곤 했다.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던 우리에게 이 정도는 그냥 보통 일상이지 않았을까? 건축설계가 좋아하는 일이었고, 재미있었고, 무엇보다도 하고 싶은 일이었기에 그 시절을 그렇게 보낼 수 있었다.

그 때의 첫 월급이 48만원. 은행에 가서 근로자 재형저축에 가입하려 했더니 최저 임금 기준 미달로 기준수가 정해진 것이 없어 가입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래도 좋았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었기에, 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를 통해 배워하는 일들이 너무 소중했기에, 건축설계는 월급 얼마로 정의할 수 없는 우리의 천직이었다. 프로젝트가 주던 성취감과 동료들과 느끼던 동질감, 그리고 건축사가 되었을 때의 작은 위안들...

유독 우리 대학 동기들은 건축사사무소로 취업한 비율이 높았었다. 그만큼 건축설계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고 디자인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숫자를 손꼽을 수 있을 정도로 줄어들었다. 불경기는 건축설계에서 시작되고, 호경기는 건축설계에서 끝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렵고 열악한 우리의 건축설계 시장은 IMF를 거

focus

외국 건축사에 비해 턱 없이 낮은 설계비와 설계 도서를, 책 한권이 뭐 그리 비싸냐는 식으로

쉽게 생각하는 건축주의 잘못된 인식은 5년 전과 바뀐 것이 없다.

- 심화되었을 수도 있다 - 게다가 대형 건설사가 건축사사무소를 소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고,

그나마 소형 건축사사무소의 생계수단이었던 도면 외주조차 원가 절감이라는 명목 하에

중국으로, 필리핀으로 빼앗기고 있는 현실은

이제는 건축설계 실무에서 한발 비켜있는 내게도 정말 우울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건축설계는 이제 부가가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치면서 더욱 깊은 수렁 속에 빠져 들었고, 무한한 열정과 훌륭한 능력을 지닌 우리의 동료들을 자의반 타의반 건축설계가 아닌 다른 분야로 떠나게 만들고 있다.

5년 전에 건축사사무소를 떠나며 느꼈던 그 아쉬움들이 이제는 얼마만큼 해소가 되어 있는지, 아니 최소한 현상유지는 하고 있는지, 하늘에서 내리는 눈들이 시린 가슴에 와 닿는 듯 하여 마음 한 편이 아려온다. 앞으로도 내 친구들이, 내 후배들이, 게다가 내게 배운 사랑받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길이기, 평생의 직업으로 삼아야 할 분야이기...

외국 건축사에 비해 턱 없이 낮은 설계비와 설계 도서를, 책 한권이 뭐 그리 비싸냐는 식으로 쉽게 생각하는 건축주의 잘못된 인식은 5년 전과 바뀐 것이 없다. - 심화되었을 수도 있다 - 게다가 대형 건설사가 건축사사무소를 소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고, 그나마 소형 건축사사무소의 생계수단이었던 도면 외주조차 원가 절감이라는 명목 하에 중국으로, 필리핀으로 빼앗기고 있는 현실은 이제는 건축설계 실무에서 한발 비켜있는 내게도 정말 우울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건축설계는 이제 부가가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건축산업대전에서 Revit, ArchiCAD 등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프로그램을 접한 건축사들의 뜨거운 호응 뒤엔, 원가 절감을 통한 부가가치 회복의 몸부림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한 나의 추측은 지나친 것이었을까? 부족한 수업 시간을 쪼개어 BIM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내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많은 건축사들의 노력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데 초석이 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분들께 작은 도움이나마 되기 위해서 나 또한 교육을 통하여 노력하리라 다짐해 본다.

5년 전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선거 운동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5년 동안 우리의 건축설계 업계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한다. 최소한 건축설계인들의 열정과 능력이 그만큼의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말이다. 마지막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축설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드린다.

창 밖에 내리던 눈은 어느덧 멈췄다. ▣